

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(02-734-1864), 박효민 사무관(02-734-1870)

‘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 제7차 협상 개최’ - ‘15.2.9~2.13, 태국 방콕 -

-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이하 RCEP*) 제7차 협상이 ‘15.2.9(월)~2.13(금)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임
 - * RCEP 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ASEAN 10개국 및 한·중·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·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
 -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
-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·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·협력 분야(경쟁, 지적권, 경제기술협력, 법률제도)의 주요 요소를 논의할 계획임
 - 상품·서비스·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,
 - ▲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, ▲ 서비스·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, ▲ 상품·서비스·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

○ 또한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만들기 위하여, 중소기업, 전자상거래, 정부조달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

- 특히 금번 협상부터는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및 정부조달 전문가 세미나, 중소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슈별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

□ RCEP은 2015년 말 타결목표로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, 올해에는 금번 협상을 포함한 4차례 공식 협상과 2차례 장관급 회의 및 1차례 정상 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협상 진전을 위한 RCEP 참여국들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됨

○ 우리측은 금번 제7차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, 서비스·투자 분야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

* 붙임 : RCEP 추진 현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박효민 사무관(☎ 02-734-18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* RCEP :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(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)
- * 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 체결한 6개국(한, 중, 일, 호, 뉴, 인도) 등 총 16개국 참여

1. 추진현황

- '12.11월,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
 - ASEAN 10개국과 ASEAN과 FTA를 既체결한 6개국(한, 중, 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) 등 총 16개국이 참여
 - '13년 협상 개시 및 '15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설정
- '13.5월 제1차 공식 협상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회의 개최
 - * 1차('13.5월, 브루나이), 1차 장관회의('13.8월, 브루나이), 2차('13.9월, 호주), 3차('14.1월, 말련), 4차('14.3-4월, 중국), 5차('14.6월, 싱가포르), 2차 장관회의('14.8월, 미얀마), 6차('14.12월, 인도)
- 공식 협상을 통해 협상 메커니즘을 정하고 분야별 논의 진행
 - (상품) 1차 양허안 주요 요소(수준, 관세철폐기간, 유관세품목 포함 여부 등) 및 협정문 포함 요소 관련 논의(* 상품 통합협정문 작성)
 - (서비스/투자) 자유화 방식(Negative/Positive)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 및 등에 대한 논의 지속(* 각국 제안 요소 매트릭스 작성)
 - (규범·협력) 4개 작업반(경쟁, 지적권, 경제기술협력, 법률제도) 및 4개 소작업반(원산지, 통관, SPS, STRACAP) 작업반 설치
 - 각 분야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
 - ▲ 중소기업, 전자상거래의 협정문 포함 방법 및 ▲ 정부조달, 노동 등의 RCEP 협상 대상 포함 여부 관련 의견 교환

2. 향후 추진 방향

- (기본 방향) 현재 진행 중인 한·중·일 FTA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, 동 FTA와 RCEP을 연계하여 중·일과 함께 RCEP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
- (분야별) 상품·서비스·투자 자유화 방식 논의를 지속 추진하며, 각 분야별 통합협정문 작성시 우리측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